

## 예배안내

주일1부예배	9 AM	아가페홀
주일2부예배	10:45 AM	본당 & 라이브
중고등부	11 AM	아가페홀
주일학교	11 AM	본당 지하
화요소망학교	11 AM	본당 지하
수요일예배	7 PM	본당
AWANA (수)	7 PM	아가페홀
새벽예배 (화-토)	6 AM	본당

PALM SUNDAY WORSHIP

APRIL 13 2025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방송/교육	오정훈 목사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청년부	청빙중
찬양/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주일학교	김성은 사모
시무장로	윤순기
휴무장로	백형수
은퇴장로	김대희 임병갑 백근조 이덕흥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협동장로	전세환
지휘자/서무	박은실
찬양인도	공석우 류충환 문강한
반주자	노운실 김성은 김은화 이화니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박정효 이윤희 김혜연 원영철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조희수



## 열방을 섬기는 이들

중 국	이주애	NIM 북한 선교회	임현석 (교회 후원)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아이오와 다민족	서정호 (교회 후원)
요르단	설총호/전경원	CHEROKEE	(교회 후원)
도미니카	이광호	CHILDREN MISSION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Email HopeSTL@gmail.com  
 Agape Hall (314)786-5018 www.HopeSTL.org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주 일 예 배

-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Palm Sunday
- 참회의 기도 이사야 Isaiah 55:6-7
- 찬송 찬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 기도 윤순화 장로
-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 봉헌송 찬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 성경봉독 욥기 Job 13:20~14:10
- 말씀 주께 가까이 가는 지혜자 (10): 상한 우물 안의 욥 (3)  
**The Wise Draw Near the LORD (10):  
 Job in the Broken Well (3)."**
- \*결단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 \* 축도 김성직 목사

\* STAND UP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셨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겔 33:13).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영적 감정

그러나 진정한 영적 감정은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진정한 영적 감정은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킨다. 예수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드러움에 대하여 언급하셨다(마 10:42, 18:3; 요 13:33). 어린아이의 살결이 아주 부드러운 것처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의 마음은 아주 부드럽다. 어린아이는 살결뿐만 아니라 마음씨 또한 부드럽다. 어린아이는 쉽게 동정심을 느끼므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며 친절에 쉽게 마음을 사로잡힌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다.

또한 어린아이는 무서워 보이는 것에 쉽게 겁을 먹는데 그리스도인 역시 도덕적 죄가 나타날 때 이를 경계한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 부딪히면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으로 뛰어간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뛰어가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혼자 있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위험을 느끼고 두려워한다.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이 직면하는 영적 위험을 경계하게 되고, 자신의 영혼 상태를 걱정한다. 또한 어린아이가 어른이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 쉽게 겁을 먹듯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무서워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작고 가장 부드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 제3부 진정한 영적 감정을 분별하는 방법!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한 권 나눕니다. 물론 이 역시 완벽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도 올바른 믿음과 대각성이 주 안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그렇듯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9.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거짓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거짓 감정은 마음을 녹일 것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한다. 거짓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책망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점점 더 영혼의 상태와 행동 방식에 무관심해질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구별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언행을 통해 나타나는 죄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들은 자신이 매우 잘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믿음에 의한 감동과 경험을 체험했으므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죄에 대한 자각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을 때는 자신이 이행해야 할 종교적, 도덕적 의무에 대해 매우 진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지옥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던 삶을 버리고 각종 정욕과 욕망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몰아넣는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자기 죄의 구세주로 신뢰할 뿐이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 때문에 분노하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자 정도로 생각한다. 유다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유 1:4).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 말씀 나눔

주께 가까이 가는 지혜자 (10): 상한 우물 안의 옴 (3), 옴 13:20~14:10

<본문 속으로>

1. 옴은 하나님께 주의 무엇을 내게 대지 마시라고 말하나요? (13:21)

2. 옴은 또 무엇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라고 간구하나요? (13:21)

3. 옴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해서 놀라고 있다고 표현하나요? (13:25)

4.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무엇이 가득하다 옴이 말하나요? (14:1)

5.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된다고 옴이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14:10)

## 교회와 가정을 위해

-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각 성도가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수요일모임, 새벽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소서.
- 권사 기도회, 장로 기도회, 사역자 기도회, 구역리더 기도회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되는 소망 리더쉽 되게 하여 주소서.
-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선교부원들이 더욱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주시고 보내는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멀리 있는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가운데 경험하게 하소서.
- 연로한 부모님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늘 하늘 소망 가득안고 살아가게 하소서
-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 댄 동산처럼 물려주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부의 영적 부흥이 있게 하소서. 어와나를 통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함께 동역하며 섬겨줄 사역자들을 보내주소서.
- 담임목사님의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공동체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몸 된 소망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 소망교회 안에서 EM 예배가 하나님께 드러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 세계를 위해

- 어지러운 한국의 상황과, 미 행정부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려 주소서.
- 열방에서 수고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주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교우들을 위해

- **안성실 권사님** 허리수술 후 회복, **이창진 장로님** 무릎수술 후 회복과 청력 회복, **오정일 집사님** 무릎동맥 수술 후 재수술, **Charles Biesen** (김기홍 권사님) 심장 수술 후 회복시켜 주소서.
- **캐서린**(신상란 권사님 자녀)을 하나님께서 건강히 회복시켜 주소서.
- **Emily**와 태아의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 주시옵소서.
- **김지영 집사님**과 **Josh** 가정에 보내주신 **Kaiya**(10세)가 하나님사랑 가족사랑 받고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 연로하신 어른신들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 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예배를 섬기는 이들

### ➔ 4/13

대표 기도 윤순화 장로  
교회 안내 오귀록 장로 임희남 권사  
번역/통역 이화니 자매 원영철 집사  
애찬 담당 도미니카 구역

### ➔ 4/20

대표 기도 백형수 장로  
교회 안내 전세환 장로  
번역/통역 이화니 자매 박정호 집사  
애찬 담당 1 조

## 교회행사

- 4.13 주 릴레이 금식기도 시작
- 4.15 화 고난주간 특.새 시작
- 4.18 금 성금요일 예배
- 4.20 주 부활절 예배
- 4.27 주 전교인 대청소
- 5.11 주 Mother's Day
- 5.18 주 야외예배(Love Park)
- 5.25 주 구역 소모임

## <생활 속으로>

1. 주께 가까이 가는 지혜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주위에 모여드는 예배자로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오늘도 주께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은혜 부어주시는지,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지혜자입니다. 나 역시 오늘 옹처럼 하나님이 그저 두렵기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만 느껴진 적이 있는지, 하나님 한 분 만이 경외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신데, 내가 혹 따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지는 않은지, 주께 드리는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 향기로운 예물

4/6/2025

주일	925
십일조	4,750
감사	1,090
선교	20
구역선교	490
건축	20
주일학교/유스	0
방송문서 보조금	100
청년부 보조금	100
<b>현금 총액</b>	<b>\$7,495.00</b>
<b>현금외 수입</b>	
<b>입금총액</b>	<b>\$7,495.00</b>

### 이번주 기도구역

중국 구역  
(임병갑 장로 배은숙 권사)과  
이주애 선교사

### 이번주 기도가정

김일복 권사님

2. 주께 가까이 가는 지혜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속한 나그네 인생임을 인정하면서, 항상 독수리 날개로 날 친히 업어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장막 인생 담게 살아내는, 주께 가까이 가는 지혜자입니다. 나도 오늘 옹처럼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은지,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분향이 어디라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나그네 인생을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 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주께 가까이 가고 있는 내 사람들은 누구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저희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1968년 세인트루이스 최초의 한인교회로 시작하여, 지금의 한인소망교회로 연합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한인소망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후 본당 지하 새가족실에서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식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예배안내 & 교회소식

**함께하는 성경통독!** 2025년 한해의 시작과 함께 성경통독을 해서 연말에 1독을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소망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13	4/14	4/16	4/16	4/17	4/18	4/19
왕하 16-18	왕하 19-21	왕하 22-23	왕하 24-25	대상 1-3	대상 4-6	대상 7-9

- 기도함:** 기도제목을 작성하여 교회 로비 기도함에 넣으시면 담임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 이번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4/15-19) 새벽 6시에 찬양이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함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릴레이 금식기도:** 오늘부터 한주간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기도가 시작됩니다.
- 권사 기도회:** 오늘 예배 후 1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 장로기도회:** 이번주 토요일 아침 7시에 본당 옆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 성금요일 예배(성찬식):** 이번주 금요일(4/18) 오후 7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특별새벽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 관계로 이번주 수요일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 부활절 예배:** 4월 20일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 전교인 대청소:** 4월27일 예배 후 전교인 대청소를 합니다.
- 단기선교 모집:** 인디안 단기선교와 해외 단기선교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로비 게시판에 사인업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후보 다음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 <이번주 새벽예배 일정>

4/15 화	4/16 수	4/17 목	4/18 금	4/19 토
김성직 목사	김성직 목사	김성직 목사	김성직 목사	김성직 목사
막 14:12-26	막 14:32-42	막 15:1-15	막 15:25-38	막 15:39-47

## 기도회

### 예배를 위한 기도회

매주 주일 아침  
10시 본당 지하  
새가족실

### 장로 기도회

4월19일 토요일  
새벽예배 후 6시 45분  
본당 옆 회의실

### 사역자 기도회

4월 26일 토요일  
새벽예배 후 7시  
본당 옆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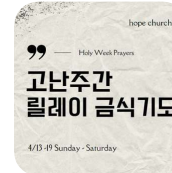
### 권사 기도회

4월 13일 주일  
예배 후 1시에 본당

### 구역리더 기도회

7월 20일 주일  
예배 후 1시에 아가페 홀

## Sign up 광고



### 4.13 주일 -4.19 토요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교회 로비에 있는 사인업 게시판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날짜에 작성해 주세요



### 6월 오클라호마 인디안 선교 9.22-27 칠레 단기선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로비 사인업 게시판에 작성해 주세요  
문의: 윤순기 장로님

## 교우 동정